

데스크 시각

모스크바를 아세요?



박진현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1988년 늦은 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지금은 추억 속으로 사라진 광주현대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봤다.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1981년 제작)라는 다소 ‘비장한’ 제목의 영화였다. 지방에서 모스크바로 상경한 여공 3명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다는 해피엔딩 스토리다.

워낙 오래 전에 봐서인지 자세한 내용은 가물가물하지만 ‘소련관 벨로드라마’에 올고 웃었던 기억은 지금도 또렷하다.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는 주인공들의 로맨스와 ‘깨알같이’ 등장하는 옛 소련의 문화와 전통은 참 흥미로웠다.

기가 뜯금 없이 ‘흘러간’ 소련영화 얘기 를 깨낸 이유는 최근 모스크바에서 영화 못지 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러시아에 대한 식견은 그리 깊지 못하다. 25년 전 ‘모스크바…’를 보기 전까지

만 해도 러시아는 뺨을 배급받기 위해 10m 이상 줄어서 기다려야 하는, 살기 학파한 나라라는 인상이 강했다.

당시 텔레비전의 국제뉴스에 자주 나왔던 러시아 사람들의 삶에 친진 모습에선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블스토이, 차이코프스키, 블쇼이 밸레단 등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많은 나라지만 웬지 ‘예술의 도시’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당장 먹고 사는데 바빠 문화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발레관람이 일상인 모스크바

이런 기자의 편견은 모스크바에 도착한 첫날부터 깨졌다. 지난 5월6일 국제여성미술제가 열리는 시내 중심가의 예술가의 집(House of Artist)으로 가기 위해 찾은 지하철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한국과 달리 각 역마다 불거리가 가득해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촘소콜스카야역의 아름다운 벽화와 전등은 유럽의 호화로운 궁전을 떠올리게 했고, 아르바트스꼬-바그롭스카야역의 객차 안에서는 이동갤러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한마디로 모스크바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문화메트로’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옛 소련의 화려한 시

절을 말해주듯 시내 곳곳에는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넓쳐났다. 도시 미관을 위해 거리의 쓰레기통과 공사 중인 건물의 가림막 조차 예술작품으로 디자인한 점은 도시의 품격을 느끼게 했다.

무엇보다 블쇼이 밸레극장에서 만난 모스크바(모스크바 시민)의 표정에서 문화시민의 저력을 읽을 수 있었다. 사실 모스크바의 밸레시랑은 유별나다. 겨울이 빨리 찾아오고, 밤이 긴 자리적 여건상 밤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공연장을 찾아다니는 것이 일상화됐다.

이 때문에 연극과 밸레, 오페라를 공연하는 수십 개의 크고 작은 극장에선 매일 수많은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웬만한 공연은 한 두 달 전에 티켓예약이 마감될 정도다.

특히 도심에 위치한 블쇼이 극장은 성장(盛粧)한 노부부에서부터 발랄한 차림의 20대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관객들로 넘쳐난다. 객석의 평펴집한 중년 여성들은 모던 밤에 ‘봄의 제전’의 춤거리를 즐겼을 정도다. 추운 겨울 동안 밸레, 뮤지컬, 전시장 등을 찾아다니다 보면 따뜻한 봄을 맞게 되는 곳이 바로 모스크바다. 이들에게 있어 문화향유는 특별한 의식이 아닌, 말 그대로 삶의 한 부분이다.

이 같은 모스크바의 예술사랑은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흔히 문화생활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긴다. 형

편이 어려운데 한가하게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둘러 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너너하지 않은 나리임을 생각하면 소득수준이 문화생활을 좌우한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는 곧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문화향유는 예향 광주의 미덕

그렇다면, 아시아의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시민들의 일상은 어떠히나? 유감스럽게도 그리 ‘문화적’이지 않다. 최근 한국 레저산업연구소가 지역별 1인당 문화오락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민들의 1인당 오락문화비는 65만2404원으로,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6위에 그쳤다. 문화오락비는 전시 및 공연관람, 신문, 서적구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한 지역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척도 가운데 하나다.

물론 광주의 빈약한 문화토양이 비단 시민들의 낮은 문화마인드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인들의 문화향유가 막기름이 돼 예술도시로 거듭나는 모스크바는 ‘문화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예술에 대한 관심과 향유는 문화시민의 첫 번째 덕목이다.

(jhpark@kwangju.co.kr)

온펜칼럼

류현진 완봉승과 한국야구의 내일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요즘 야구 너무 재미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재미있고, 바다 건너 미국의 프로야구도 류현진 덕분에 재미있게 보고 있다. 며칠 전에는 완봉승을 거두기도 했다. 완봉승 이런 투수 한명이 한 경기를 끝까지 던지면서 상대 팀에게 실점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을 뜻한다. 메이저리그에서 완봉승을 거둔 한국인 투수는 박찬호, 김선우에 이어 류현진이 세 번째이다. 미국의 프로야구에서는 매우 드문 일로 평균 60경기당 한번 정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최다 완봉승 투수는 과거 해태 타이거스의 선동렬 선수로 29번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2위는 윤학길, 정민철 선수로 총 20번의 완봉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4200여개의 고교 야구팀이 있다. 야구 단체와 프로야구 구단의 지역 중고교 야구팀에 대한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유소년

있다. 프로야구 초기였던 1980년대에는 304완봉승이 있었고 이는 9경기당 한 번 정도로 훌륭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투수 분업화가 시작된 1990년대 13경기당 한 번꼴로 빈도가 줄었다.

불펜 야구가 자리 잡은 2000년대 이후에는 완봉승이 50경기당 한 번꼴로 볼 수 있는 진귀한 기록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작년 시즌에는 단 6차례 완봉승만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야구팀은 53개 정도이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 할 때보다 줄었다. 초등학교 소속팀은 100개. 중학교 야구팀은 85개이다. 지역 리틀리그 야구팀은 140개이다. 초등학교 팀 수는 몇 년간 변화가 없지만 리틀리그 야구팀은 6년 사이에 25개에서 140개로 늘었다. 리틀리그 야구팀 수가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교 야구가 대세이기 이 정도의 야구팀 수는 너무도 부족한 상태이다.

미국 스포츠의학 연구소(ASMI, American Sports Medicin Institute)에서는 한참 투구를 배우는 시기인 만 13~14세에는 개임 당 75개, 주당 125개, 시즌당 1000개 연간 3000개로 투구 수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야구 선수들, 특히 투수들의 과다 투구는 지금 보다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초, 중등야구 투수들의 팔꿈치 어깨관련 부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은 고등학교부터 학교 야구이며 초, 중등야구는 주로 클럽중심이다. 리틀리그부터 고등학교 투수들은 1주일에 100이닝 이상을 뛰는 규정이 있다. 어린 선수들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등야구는 한 경기당 3이닝만 던지는 규정이 있으나, 다음 경기에 투수만 아니면 출전을 할 수 있다. 중, 고교 야구는 애초 투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성인들의 경기인 2013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도 1라운드에서는 65개, 2라운드에서는 80개, 준결승 이상에서는 95개로 투구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2일 이상 연속 투구 시 1일 휴식의 규정이 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것이 많이 완화된 규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초, 중, 고교야구 그 어느곳에도 커브볼 투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전체적인 투구 수에 대한 규정은 물론 아니라 커브볼을 던지는 시기에 대한 규정도 반드시 필요하고 판단된다. 요즘 우리는 즐겁게 해주는 많은 우리나라의 야구선수들과 제2의 박찬호, 류현진을 바란다면 말이다.

온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 모임인 ‘온펜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우리나리에서도 유소년 선수 보호차원에서 초, 중, 고교 야구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투구 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커브볼에 대한 규정이다. 만 13~14세 이전의 커브볼 투구와 사이드와인더 투구 동작으로 팔꿈치관절 부상의 위험은 3배 이상 증가한다. 미국 스포츠의학연 구소는 커브볼은 14~16세 정도에 처음 배우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물론 사춘기의 발달 시기가 매우 다양하므로 산술적인 실제나이(chronological age)보다는 신체 성숙도(physical maturity)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초, 중, 고교야구 그 어느곳에도 커브볼 투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전체적인 투구 수에 대한 규정은 물론 아니라 커브볼을 던지는 시기에 대한 규정도 반드시 필요하고 판단된다. 요즘 우리는 즐겁게 해주는 많은 우리나라의 야구선수들과 제2의 박찬호, 류현진을 바란다면 말이다.

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광주 경제 전반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다. 전국 인구 10%를 넘는 호남지역 주민이 모두 광주과학관의 잠재적 관람객이다. 민간 자율에 기반한 과학관 법인의 경영은 서비스 향상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공익성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수익 모델 창출이 가능하며, 기부·후원을 통한 재정 충당도 한 방법이다. 좋은 예로 주민 기금으로 세워진 미국 텐버과학관은 입장료와 기부금, 연구 기금 등을 기반으로 매년 20억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셋째,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혜택을 생각해야 한다. 사실 무었보다 안타까운 것은 어른들의 예산 갈등 속에서 상상의 기회를 유예 당한 아이들이다. 과학관 개관이 계획된 곳에서만은 물론 미래부의 20% 조정안도 거부한 채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원칙을 외면하고 신뢰를 깨뜨린 쳐사라 볼 수밖에 없다. 정부와의 공조에서 신의를 잃은 자자체는 다른 국책사업 유치에서도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 거시적인 경제 관점과 적극적인 경영이란다. 필요하다. 광주시가 분단된 과학관 운영비는 12억원 내외이지만, 넓은 관점에서 보면 관람객 유입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 110여명의 과학관 인력 현지 채용

국립광주과학관, 이제는 문을 열어야



조만형
국립대구·광주과학관 법인설립위원장
한남대 행정학 교수

지난해 11월 국립광주과학관이 완공됐다. 빛·예술·과학을 테마로 세워진 광주과학관에는 56개 주제 150여 개의 전시물들이 지역 아이들의 탄성을呼び는 눈빛을 기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상반기로 예정했던 광주과학관 개관이 무산되고 있다. 문제는 ‘과학관 운영비’에 있다. 자자체의 운영비 분담을 요구하는 정부와 ‘전액 국비 지원’을 주장하는 광주시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열악한 지역 재정에 속 시원히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정부의 입장도 편협한 것은 아보이고, 이미 협약한 운영비 분담 약속을 번복하고 나선 광주시의 사정도 안타깝다. 그러나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이런 어른들의 예산 갈등 속에 아이들이 과학을 꿈꿀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운영비 갈등을 촉발시킨 광주시가 전향적인 모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박근혜 정부서도 여전한 호남인사 훌대

박근혜 정부의 고위 공무원단 3명 가운데 한 명은 영남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권에서 큰 폭으로 줄어든 호남 출신 비율은 박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호남 훌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출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 17개 부의 가급과 나급 고위공무원단(567명) 중 출신 지역이 파악된 421명 가운데, 영남권 출신 인사 비중이 전체의 36.6%에 달했다. 대구·경북(TK)지역이 20.4%로 1위이며, 부산·울산·경남(PK)지역 인사 비율은 16.2%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호남은 광주·전남지역이 13.8%, 전북이 7.4%로 21.2%에 그쳤다. 장관급 이상만 하더라도 영남이 8명인 반면 호남은 사실상 2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수치는 이명박 정권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차이가 없어 지역 편중인 사례를 언제까지 앓아서 당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 주요 보직자도 2명 중 1명(43%)꼴로 영남에 압도적이다. 호남 출신은 17.9%로 영남에 한참 뒤진다. 이는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호남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대탕평인사부 펼칠 것”이라며 공약과 정면 배치된다.

박 정부가 국정 기조로 제시한 인사 대탕평과 국민대통합이 물 건너 가면서 호남사람들은 허탈감을 넘어 상실감에 젖어 있는 게 사실이다. 상처에 오히려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됐기 때문이다. 예산과 정책에서의 소외도 불 보듯 뻔하다.

이제, 호남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호남권 자체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의 모든 세력 등이 뜰뜰 뜰처럼 정부에 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 그 지긋지긋한 소외와 훌대를 언제까지 앓아서 당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공공기관 정보공개, 그들만의 얘기인가

박근혜 정부가 국정개혁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정부 3.0’이 정작 현장에서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해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에도 부처간 벽은 높고,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엇박자가 여전하다. 이는 본보의 취재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본보가 지난 4월25일, 날로 흡포화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대책 파악 차원에서 서해어업단에 ‘어업지도선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서해어업단은 차일피일 미루다 한 달이 지난 5월27일에야 응답을 했다. 그러면 서해농수산부 등 부처의 조작개편 혼선으로 지연됐다고 변명만 늘어놨다.

다른 부처도 혼란은 비슷하다. ‘4대 약’은 균질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지난 4

無等鼓

1960년 일본 교토, 제일교포 유봉식·태식 형제는 차량 10대, 운전사 24명으로 MK택시를 창업했다.

MK택시는 투철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했다. 낮은 밤 여성 고객이 차자하면 골목길을 라이트로 비추고, 소나기 가쏟아지면 우산을 주는 등 친동서비스를 제공했다. 장애인 우선 승차 제도·휠체어, 전 택시 기사가 구급원 자격을 획득한 구급 택시 등 다양한 고객 서비스도 마련됐다.

‘친절을 과는 택시’로 불린 MK택시는 1995년 탑지·선정·‘서비스 세계 제일의 기업’으로 뽐혔다.

1960년 일본 교토, 제일교포 유봉식·태식 형제는 차량 10대